

---

# 2021년 제42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10. 15. ~ 10. 2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10. 15.	시청률	0.002

## 【총 평】

미국 신문이 주목한 충남 서천의 '100원 택시' 인기를 비롯해 밀양 고택 '달빛 풍류'에 물들다, 완주 청년마을, '전통시장 행사'로 지역에 활기, 일상 속에 만난 한글, 작품으로 탄생 등 전국 소식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 특히 특정 지역에 편향되지 않고 고르게 전함으로써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탄소 저감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 첫선'편에서는 기존의 종량제 봉투보다 탄소배출량을 12% 줄일 수 있는 탄소 저감형 쓰레기 봉투를 소개했고, '보고 싶은 가족에게' 실향민 영상 상영회는 광주시 남구가 실향민을 위해 영상 상영회를 개최하여 남구에 거주하는 실향민 16명의 생생한 이야기를 시청했다.

## 【구성 및 내용】

- 미국 신문이 주목한 '100원 택시' 인기  
충남 서천군 선동마을의 '100원 택시'가 뉴욕타임즈 9월 11일자에 실렸다. 100원 택시는 2013년부터 시작한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로 이용자는 1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160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농촌 대중교통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밀양 고택 '달빛 풍류'에 물들다  
밀양 교동의 고택에서 밀양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락, 동요, 춤으로 야간을 밝힌다. 문화객가 사랑채에서는 숙박체험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밀양한달살이' 프로그램은 고택에 머물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 완주 청년마을, '전통시장 행사'로 지역에 활기  
전북 완주의 청년마을 '다음타운' 만들기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었다.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고 외부에서 청년의 유입을 장려하여 자체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음타운'은 지역을 재미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 '탄소저감형' 쓰레기 종량제봉투 첫선  
탄소저감형 종량제봉투는 사탕수수에서 설탕 정제 후 남은 폐당밀로 만드는데, 이 봉투는 기존 봉투보다 탄소를 12% 이상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저감형 종량제봉투는 인천 서구가 국내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활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일상 속에 만난 한글, 작품으로 탄생  
국립중앙박물관 나들길에서 제1회 '내가 만난 한글' 사진전이 열렸다. 대상은 외국인이 한글 디자인의 스카프를 만들었고, 히잡으로 사용하여 출품 했다. 금상 수상작품은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며 치매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다. 이 외에도 한글간판, 편지 등 한글과 관련 작품 30점이 전시되고 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10. 15.	시청률	0.020

## 【총 평】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발판,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은?’편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주도의 연계와 협력으로 초광역적인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추진배경과 선결과제, 분야별 지원 전략, 권역별 추진 계획,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이슈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점검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추진 배경이 충분히 다뤄져 정책의 수용성을 견인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추진 계획과 특성, 필요성 등이 소개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한 구성도 돋보였다.

‘알뜰신잡’에서는 ‘환절기 기관지 건강 예방. 관리법’을 다루었다. 특히 환절기 시의성을 고려해 증상, 원인, 예방수칙을 상세히 소개해 유익했다.

## 【구성 및 내용】

전체 인구의 50%, 인구의 50%, 청년층의 56.2%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하다. 따라서 지방은 경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젊은층이 사라지면서 지방붕괴의 우려와 불균형 성장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획기적인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내놓았다.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핵심은 여러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으로 통합해 지역에서 소득, 직업, 교육이 해결되어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특히 지역단체, 지역민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과 지역 맞춤형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 정부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공간측면에서는 전국 곳곳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권역을 지정하고 교통망을 구축해 단일경제권 및 생활권이 가능하게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업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그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도 조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육성한다. 사람측면에서는 대학간 교류확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양적기회 확대와 원활한 이동체계를 확보한다.

인구집중도가 높은 수도권은 부동산 및 인건비가 비싸 기업의 비용이 높고, 지방은 인프라가 부족해 생산부분이 비효율적이다. 초광역화가 되면 서울의 기능이 초광역단체로 분산되어 서울로 집중할 필요가 없고 지역내에서도 통합의 시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영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더 높다. 미국은 전국이 완전한 초광역권으로 나누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된다면 비용도 줄어 들고 시너지가 높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이 발달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10. 15.	시청률	0.049

### 【총 평】

‘강에서 잡은 보물 - 섬진강 재첩잡이’편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며 아름답게 흐르고 있는 섬진강이 선물한 최고의 선물, 섬진강 재첩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진솔하게 그려졌다. 섬진강에서 재첩을 잡으시는 분들처럼 건강해서 팔십, 구십, 백 살까지 계속 섬진강에서 재첩을 잡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주인공의 바람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전통어업을 지키는 어부로서 후손에게 지금 그대로의 섬진강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사명감과 철학이 적절히 잘 드러났다.

### 【구성 및 내용】

지리산이 감싸고 있는 경남 하동의 맑은 물 섬진강은 굽이굽이 평야를 감싸 돌며 흐르고 있다. 화개장터로 유명하고 평사리 들판으로도 유명하다. 전북에서 시작하여 하동을 거쳐 남해로 흐르는 강, 평사리 평야를 만들어 하동 사람들 곡기를 채워주는 그런 강이다. 섬진강은 펄보다 모래가 많고 바다와 접한 지역이라서 재첩 서식에 최적화된 장소이다.

주인공은 재첩잡이 20년 경력으로 하루에 150Kg을 채취하고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재첩은 4월부터 10월까지 채취를 하지만 그것도 물때가 썰물일 때 허리정도까지 잠길 때가 채취에 알맞다.

재첩은 ‘거랭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전통 어업 방식인 손틀어업으로 채취한다. 특히, 잡은 재첩은 다시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다음 단계는 10시간 정도 해감을 하고, 끓는 물에 재첩을 넣어야 껍질과 살이 쉽게 분리되게 한다. 10분정도 삶은 후 재빨리 건져내어 살을 골라 찬물에 담근다. 그리고 여러 차례 헹궈서 잔여 모래를 제거한다. 껍질은 따로 모아 과수원에 비료로 쓰도록 모아둔다. 재첩이 식자재로 쓰이기 시작한 기록은 1908년 ‘한국 수산지’에 기록되어 있으니 100년이 넘게 우리의 식탁에 올라온 셈이다. 특히, 재첩 잡이에 대해서 손틀어업 ‘거랭이’를 비롯해 재첩의 철, 잡는 방법, 해감하는 법과 맛있게 먹는 법까지 소개하며, 재첩을 잡으며 사는 주인공의 소박한 일상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졌다.

“강은 강답게 강 전체가 물에 잠겨서 여러 가지 어종이 자유롭게 오가며 생태계가 변하지 않고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는 주인공은 “어민들이 재첩을 보호하고 섬진강을 지켜서 후손에게 터전을 물려주어야죠.”라며 섬진강이 주는 그대로를 지키며 섬진강의 보물인 재첩을 낚으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주인공의 하동 재첩잡이 현장과 가공 현장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코스모스가 핀 가을 들판으로 소풍을 가서 재첩 음식을 소개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 아내와 아들과 함께 색소폰 연주를 하는 가족의 친화력을 보여주었다. ‘섬진강과 함께 욕심을 보리고 섬진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00. 00.	시청률	0.001

### 【총 평】

‘자연에서 새삼스럽게 살아요’편에서는 20년 간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귀촌해 70여 마리의 동물과 나무를 빗하며 제2의 삶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귀농 15년차 부부의 행복스토리를 담았다. 60대 귀촌부부의 만족감, 행복감이 메시지로 다가왔고, 자연과 빗하며 생활하며 즐기는 노후를 평온하게 전달했다. 특히 농작물 수확, 악기 연주, 나무 가꾸기, 황토방 손님맞이, 마을 산책 등 다양한 구성이 흡인력을 높였고 노후 부부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행복한 노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자연에서 새삼스럽게 살아요.’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으로 귀촌하여 15년째 동물과 나무로 가득한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공 부부의 이야기를 전했다. 동물들과 함께하는 농장의 아침과 귀촌 과정, 펜션 운영, 나무와 함께하는 의미 등을 소개했다.

부부는 2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이곳에 터를 잡은 귀촌 15년차이다. 부부의 농장에는 70여 마리의 동물과 130종의 나무, 직접 지은 황토방의 민박과 연못 카페도 있다. 15년째 변하지 않는 하루 일과 중 하나가 아침 종을 치면 모여드는 동물식구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다. 종을 치면 동물들은 밥 먹을 시간인줄 안다. 고양이 삼대가족부터 개, 거위 부부, 칠면조, 오골계, 산양 등 여러 동물 식구들을 둘러보며 밥은 물론 건강까지 두루 살펴본다. 동물들 밥을 다 챙겨주고 난 뒤에는 부부가 함께 농장을 한 바퀴 돌며 양젖도 짜고 나무 상태도 확인한다. 그런 뒤에야 부부간 커피한잔을 나눈다.

농장을 조성할 때는 조경사업을 위해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나무의 전지작업을 하며 나무와 대화를 하다보면 지루할 틈이 없다. 부부가 함께 전지작업을 하다보면 삶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회도 생긴다. 20년을 열심히 달려오던 어느 날 부부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여행지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20년을 열심히 달려오던 어느 날 부부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여행지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행복지수는 돈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귀촌을 선택했다.

귀촌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느낌표를 알아가고 있다. 과거 수차례의 여행을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를 알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다. 결국 20년간 운영하던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귀촌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복이 많구나, 열심히 살았더니 오늘이 있네요.”, “동물들이 주는 행복감 너무 만족해요 부부가 같이 있어야 편하다.” 등 노후 부부의 행복론이 잘 살아나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부부의 농장 라운딩, 황토방 장작불, 가축과의 교감, 농장의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 알람 구실을 하는 닭 울음소리 등 비디오와 오디오의 시청각 효과도 전원생활의 정취를 충분히 느끼게 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10. 17.	시청률	0.008

### 【총 평】

‘친북’에서는 북한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과 K-영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에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남한 체제를 비난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만큼 남한의 문화가 북한 사회에 많이 퍼져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마저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K-컬처’는 한국 문화의 힘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한이 드라마 ‘D.P.’와 영화 ‘기생충’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인 남조선을 비난하고 북한의 사회주의를 극찬하는 홍보전략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슈텔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관심이 몰리고 있는 정전협정에 대해서 다루었다.

### 【구성 및 내용】

‘친북’에서는 북한이 주목하는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평가한 내용과 북한 체제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약육강식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고 패륜이 일상화된 남한 사회의 실상을 폭로한다며 1등이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경기 규칙 속에서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는 경기를 오락으로 여기는 TV극이라며 매섭게 비난을 했다.

북한 매체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오징어 게임’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 방영했던 탈영병을 잡는 헌병 이야기 ‘D.P.’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있었다. 북한은 총 인구의 35%가 군인이며 의무 복무 기간이 무려 10년인 북한에서는 늘 부대와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건전한 의식을 갖고 문제점을 바로잡아나가는 남한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문화를 막기 위해서 북한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15년 형이 구형되고, 대량 반입이나 유포를 했을 경우 무기징역에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동통신법’을 제정해 휴대폰을 통해 한류문화를 접하고 유행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남한 문화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슈텔링’에서는 지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이후, 정전협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첫 번째 정전협정 제안이 이루어졌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군사 분계선이 갈등의 중심이 되어 북한과 중공군은 38선을 요구했지만 유엔 측과의 팽팽한 갈등 속에서 전쟁은 계속되었다. 한 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이 이어졌고 당시 희생된 군인의 80%가 이 고지전에서 발생되었다고 전하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10. 17.	시청률	0.044

### 【총 평】

‘공포와 야만의 기억-옥천 민간인 희생사건’ 편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과 부역 사유로 옥천지역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조명했다. 특히 민간인 희생자 중 2살 아기 목숨까지 앗아간 야만적 행위와 아버지 대신 조부모와 어머니, 숙모 등 일가족 5명이 희생된 처절한 참상이 소개돼 당시 희생사건의 실체를 가늠케 했다. 애국지사 후손들을 비롯해 당시 희생 사건 유족들의 증언과 옥천군 일대 사건 발생지를 찾아 취재한 기록물이 영상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70년여 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옥천군의 한 마을에서는 아버지들이 사라졌다. 후퇴했던 군인과 경찰이 마을을 수복한 이후에는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좌우익의 충돌이 계속되었던 충청북도 일원의 당시 상황이 설명되었다. 국민보도연맹인 옥천군연맹이 결성되고 1년이 되기도 전인 1950년 7월에 500명에 이르는 인근 지역에서 사살되었던 사건을 전했다. 당시 가족들은 희생 장소를 모르거나 시신부패가 심해 대부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고 10월 수복 후에는 인민군에 부역한 이들에 대한 처단이 실시되었다. 경찰에 연행 돼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부역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일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도연맹 희생 유족의 증언을 통해 이원만세운동을 이끈 독립지사인 육창주 선생을 비롯한 희생자의 이야기를 전해 근대사의 비극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육창주 지사는 이원면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5년,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공주 형무소에서 복역했다가 해방 이후 보도연맹원 사건에 휘말려 희생되었다. 이후 독립유공자 신청을 3번이나 거절당한 끝에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2005년이 되어서야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1949년 12월 22일 옥천군 보도연맹이 결성되었는데 해당 연맹은 가입자 늘리기에 급급하였고 가입자는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1950년 7월경에 경찰에 끌려가 옥천 여러 곳에서 사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세산리에서는 27명이 동시에 희생되었다. 옥천 지역은 마을이 수복된 이후에도 군경에 의한 마을주민들의 희생이 이어졌다. 희생 이유는 대부분 북한군에 대한 부역혐의였다. 옥천 삼청리에서는 두 살 아기의 목숨까지 앗아가기도 했다. 옥천읍의 말무덤재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옥천 보도 연맹원이 가장 많이 학살된 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공원묘지로 조성되어 유해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말무덤재 공원묘지 한 쪽에는 유해들이 일부 수습, 이장되어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의 수정과 인권 교육의 강화를 권고하였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10. 17.	시청률	0.072

### 【총 평】

‘디지털로 여는 포용 사회’편에서는 차별이나 소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감의 바탕이 되는 IT 기술과 디지털 복지를 향한 동행의 방법을 모색했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시사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보편적인 디지털 접근성을 제공하고 디지털로 인해 더 자유롭게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전달하였다.

### 【구성 및 내용】

지난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낳고 있다’며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임을 밝혔다.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기점으로 현재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자 반대로 디지털 약자들도 눈에 띄게 발생하였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약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외국인 등 이들 모두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이 디지털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격차가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디지털 격차의 예시로 대학 온라인 수업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아 강의 이해도는 겨우 20~30% 정도에 불과한 현실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습도우미 학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독자적 학습이 가능하지 않은 장애학생은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서 휴학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디지털 차별과 불평등을 겪지 않게 하려면 기술과 정책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도시에 생활 SOC(문화·체육 등 공원시설)를 활용하여 강사와 서포터즈를 배치하여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작년부터 2년째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작년 하반기에 43만명이 교육을 받았고, 코로나19로 디지털 서비스 활용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특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 시각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편리를 위해 내비게이션과 플랫폼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을 소개했다. 시각 장애인 위치기반 검색 플랫폼은 시각 장애인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보행경로 등 경험데이터를 축적하여 장애인들에게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했다. 디지털 격차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으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원격 근무가 실시되었을 때 시설의 뒷받침이 가능한 대기업 직원들은 어려움 없이 근무 형태를 바꾸었지만, 현장에서 작업하는 계층은 거의 실직되었다.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디지털 격차는 확대될 것이므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10. 17.	시청률	0.002

## 【총 평】

‘치매국가책임제가 가져온 변화’편에서는 정부가 시행한 치매국가 책임제 4년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치매환자 증가로 극심한 스트레스, 치매 공포감, 장기간 치료비 부담 가중, 가족의 갈등 심화 등으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책시행 4년을 점검한 기획이 탁월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료비 지원 등 환자 진료지원을 위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환자와 그 가족의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확인해보는 구성이 돋보였다. 도입부에서 치매극복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자의 환자가족 돌봄 경험을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그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음을 알리는 포맷이 설득력을 높였다. 이밖에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제도 성공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했고, 안심센터와 환자쉼터, 가가호호 가정방문서비스 운영 등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잘 전달했다.

## 【구성 및 내용】

‘치매국가책임제가 가져 온 변화’는 정책 시행 4년째를 맞이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소개했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국가책임제의 미비점과 보완점, 치매비용부담의 경감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경기도 과천시시 한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65세 이상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다.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져 치매지원이 이뤄졌고 지난 4년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조기검진을 받은 사람은 18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접근성이 높아져 고령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많이 허물어진 결과이다. 조기검진 이후 등록연계를 통해 유관기관을 연결해주고 치매악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도 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이용자이다. 환자가 치료를 진행하는 사이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상담이 이뤄지며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의 심리, 마음의 안정을 도모한다. 4년 전 치매안심센터가 47곳이었음에 비하면 현재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졌다. 양이 늘어난 만큼 질도 제고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치매인프라 구축의 또 다른 한축인 치매안심병원이 아직 5곳뿐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중증치매환자를 치료,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당초 개설 목표치는 55개였다. 치매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만성 질병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높다.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관련 비용은 약 2,072만 원이다 정부는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했고 그 결과 현재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중이며 본인부담률도 10%로 낮췄다. 즉 중증 치매의 경우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